

2 0 1 4
FALL
Vol. 40

자유 · 소통 · 행복으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는

원익인의 따뜻한 이야기

원익인



自由
+
疏通
+
幸福

자 유 · 소 통 · 행 복 으 로 더 큰 내 일 을 열 어 가 는 원 익 人 의 따 뜻 한 이 야 기

COVERSTORY



04 **Cover story**
패션과 인재 중심
H&M

08 **Wonik News**
원익인 뉴스
원익가족소식

20 **Cover Story**
CEO Column
(주)원익PS 변정우 대표

CONTENTS

COVER STORY



04 Cover story

패션과 인재 중심
H&M

08 Wonik News

원익사 뉴스
원익가족소식

20 Cover Story

CEO Column
(주)원익PS 변정우 대표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24 Discovery of Baduk

2014년 바둑
국가대표

28 Special Edition

삼성 콤프레셔
광주공장 견학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눈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32 Wonik Business

(주)원익
CMS Cosmetic 팀

36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뱅크올룹슨

40 Wonik Business

2014 I-SEDEX
국제반도체대전

가슴벅찬 행복

원익사의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4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큐엔씨 봉사활동
'함께 나누는 SUMMER 나들이'

50 Zoom in

(주)원익아이피에스
2014 명랑운동회

54 Zoom in

(주)원익IPS _ 이현준(미국서부 여행)
(주)원익큐브 _ 유기연(유럽 여행)

L I F E S T O R Y



62 Musical

창작 뮤지컬 '그날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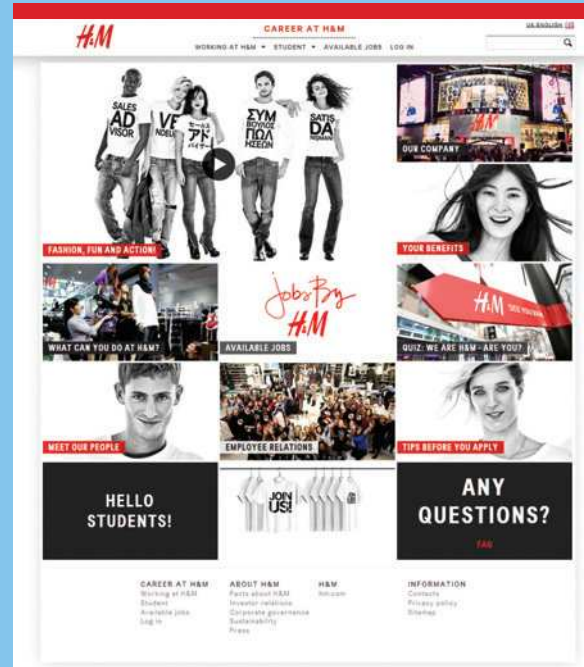
64 Health

담뱃값 인상과 금연

66 Economy

주택연금제도

“브랜드 밸류(VALUE)를 확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원을 통하는 것”



합리적인 가격과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유명한 H&M은 1948년, 설립자 알링 페르손에 의해 헨네스(Hennes)라는 이름의 여성의류 전문 판매제조업체로 시작했다. 헨네스는 스웨덴어로 ‘그녀의(Her)’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그 이름처럼 여성복 제조와 판매에 주력한다. 그러던 중 68년 스톡홀름의 사냥장비 매장인 ‘마우리츠(Mauritz)’를 인수하게 되면서 종합 의류유통 브랜드로 헨네스와 마우리츠의 약자 H&M으로 부르게 되었다.

H&M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의류 제조와 유통을 일원화하여 재빠르게 유행을 반영한 패스트패션의 열풍과 함께 제품을 내놓아 인기를 끌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매장을 개설했다. 현재 전 세계 53개국 2,600개 이상의 매장이 있다.

H&M의 성공 전략

H&M은 글로벌 패션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추구해왔다. 2004년 샤넬 수석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의 독점 컬렉션을 선보이며 시작된 유명 명품 브랜드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H&M의 트레이드마크. 지금은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콜라보레이션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라거펠트와 첫 시도했던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1시간 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후 스텔라 맥카트니, 빅터앤롤프, 마돈나, 로베르토 카발리, 매튜 윌리엄슨, 지미 추, 소니아 리키엘, 랑방 등과 공동작품을 내놓으면서 매 시즌 패션 피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또한 H&M은 기업의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곳이다. 지속가능성 경영 부서에서는 H&M이 윤리적으로 패션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경영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H&M의 공급망 전체가 H&M의 윤리 규범과 환경 목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경영 부서는 네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일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영을 지원, 관련 운영 방향을 결정해 조정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그룹과 기업 활동 전반 환경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운영 방향을 결정하며 조정 환경 지속가능성 그룹이 있다. 또 상품과 상품 수명주기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운영 방향을 결정하며 조정하는 생산 지속가능성 그룹,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속가능성 경영을 조직하고, 사내외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의 콘텐츠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관계 지속가능성 그룹으로 나뉜다.

H&M이 표방하는 '열린 정책'

“직원들은 공정한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

H&M은 직원들에게 공정한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라고 말한다.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H&M

Product Manager

Do you have what it takes to build top performing teams in the world of production? Then this might be the role for you!

The responsibility of a Product Manager covers many different parts of production, from product handling and development, quality, shipping procedures and both production to prices and strategies.

Your role includes implementing both short term and long term strategies for the region, while ensuring that they match our global strategies. You ensure that all quotations are being sent to the most suitable suppliers and that our price method is applied on a daily basis.



Production

Where we secure the production

H&M does not own any factories. Instead, our garments are bought from around 700 independent suppliers, mainly in Europe and Asia. At our Production Offices, located all over the world, we deal with all the practical aspects of production, and keep in constant contact with the suppliers.



Our Production Offices place orders with suppliers and ensure the items are produced at the right price, are of good quality and are delivered on time.

Employee Relations

A fair partner, good friend and encouraging coach.

As a growing global company, our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our employees is bigger than ever. Currently, H&M employs around 110,000 employees in over 50 different countries worldwide.

Our approach is shaped by a strong respect for each individual. This applies to every aspect of the employment - from fair wages, working hours and freedom of association, to equal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within the company. Being a good employer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countries where laws and regulations fall short of our own standards and requirements.



Sales Advisor

Do you love fashion, and working as part of a great team? Then this might be the role for you!

Sales Advisor is one of our most important positions, and a great way to start your career with us. Many of our managers started on the sales floor, where it's all about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be a good fit for our Sales Advisor team you're a multi-tasker who enjoys working in a fast-paced environment. You're also a positive, friendly person with great organizing skills and who enjoys working with a team of people who are just as outgoing and interested in fashion, and providing excellent customer service as you are.



Business Controller

Are you a sharp-eyed analyst with admirable people skills? Then this might be the role for you!

Being a Business Controller at H&M means focusing just as much on business and profitability as on motivating your team to do the same.

Our ideal candidate has a true gift of turning analysis into action, whether you work in buying, sales, production, expansion or anything in between. You'll be given plenty of responsibility from day one, and with excellent leadership skills the career possibilities are endless.



Follow J. Kim, Corina and Arjan for a day

At H&M, you will play an important role within your area's Management Team. You are responsible for the whole process - from analysis and setting targets to follow-up and profitability. No matter if you manage

Human Resources

Where we focus on making H&M the most attractive place to be

The Human Resource Department (HR) is a strategic partner for our business. We set standards for recruitment, implement training and support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entire organization. All to ensure we have the right people with the right skills in the right positions - and at the right 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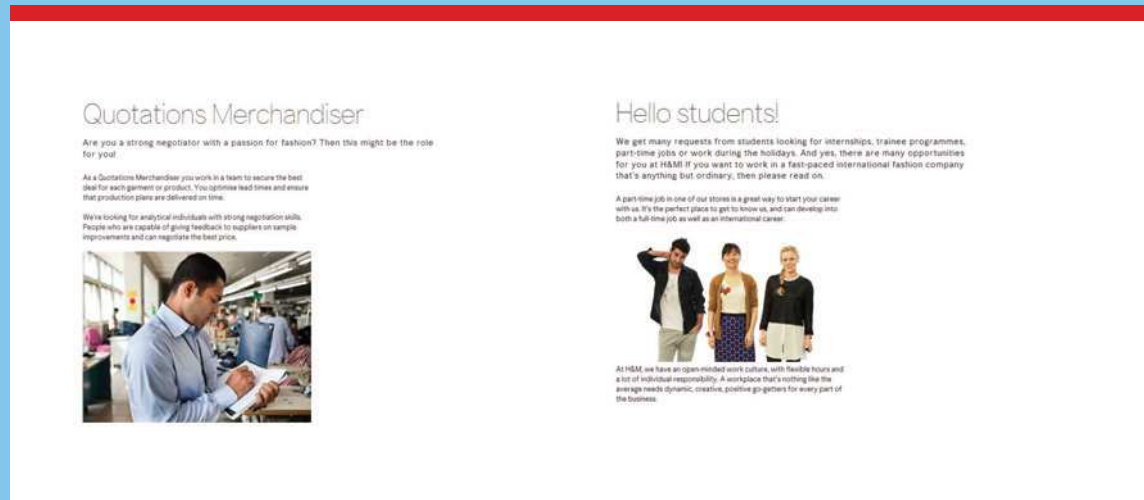
Our goal is to be a fair partner to our employees, and to act with integrity and respect towards everyone who contributes towards our success. H&M should be a place where everyone feels valued and able to develop.

은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현재 H&M은 전 세계 국가의 매장에서 116,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H&M의 기본방침은 개개인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런 방침은 공정한 임금과 근무 시간 보장 및 사내 자기계발과 균등한 성장의 기회에 이르는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 적용되고 있다. H&M이 표방하는 ‘열린 정책’은 모든 직원들이 업무 관련 사안을 매니저와 직접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것으로 단체 교섭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H&M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 충실하고 장기 근속한 직원을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상시적으로 공장을 감시하는 직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가 아동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한다는 규정도 가지고 있다. 또 공급업체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공정 임금 지불 시스템, 생계 임금 로드맵 같은 다양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H&M은 성과공유제의 일환으로 ‘H&M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스테판 페르손 가족이 기부해 만들어진 한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금은 H&M 주식(약 1,600억 원 상당)과 회사의 배당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5년 이상 근속자라면 국가, 직종, 직책에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직급에 관한 사내 교육을 시행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게 만들기 위해 사내 직무 순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승진 기회의 제공과 국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Sales Advisor와



Department manager, Visual Merchandiser, Store Manager 교육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H&M은 피드백과 업무 평가가 직원들의 발전과 만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믿고 있다. 연간 평가와 연봉 협상은 직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써 직원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전문성 개발은 H&M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라고 여겨진다. 기업과 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야만 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익의

'열린 소통'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통은 타인 중심의 배려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의 소통 경영은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성장과 함께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게 된다. 원익이 추구하는 핵심가치 '자유, 행복, 소통' 역시 사람이 먼저인 기업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 한 방향을 향해 가기 위함이다. 기업과 직원이 별개가 아닌,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원익의 미래가 밝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직원들 개개인의 행복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원익의 도약이 앞으로도 더욱 기대된다.

글 윤보라



(주)원익

(주)원익 비전선포식 “Your No.1 Global supply chain partner!”



(주)원익은 2014년 09월 26일 (금) 판교원익빌딩 2층 AV룸에서 “Your No.1 Global supply chain partner”라는 비전에 대한 선포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비전 선포식은 비전을 통해 원익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든 임직원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재현 대표이사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사업부별 상세비전(메디칼 부분 이창진 전무, 통상 부분 윤재연 상무, 바이오 부분 박종만 상무)에 대한 공유로 이어졌다. 또한 (주)원익의 비전을 위해 6개월 동안 노력한 비전 TFT팀을 대표로 이창진 전무(TFT팀 PM)에게 포상이 진행되었다, 이창진 전무는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비전이라며 모두에게 공을 돌렸다.

다음으로 비전문구와 개인별 성명을 새겨 넣은 텀블러 수여식이 있었다. 생활 속에서부터 비전에 대한 실행의지를 키우자는 의미를 담아 임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최고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유통서비스업 전문상사!, Your No.1 Global supply chain partner!” 새로운 비전으로 재도약하는 (주)원익을 기원하며, 비전표어 제창을 끝으로 비전선포식을 마무리 하였다.

(주)원익

(주)원익 Aesthetic팀 파트너 워크샵 진행

(주)원익의 Aesthetic팀은 지난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릉 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파트너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Aesthetic팀은 매년 파트너 워크샵을 통해 대리점 교육 및 사장단 개별미팅, 상반기 실적공유와 하반기 영업전략 논의를 진행한다. 올해에는 (주)원익의 이재현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더욱 의미 있는 워크샵이 되었다.



첫째 날 대리점 사장단 개별미팅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진행되었다. 보통 Aesthetic팀 전원이 각각 제품을 맡아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특별히 신제품 이노펙터에 의해 태평양제약 및 아모레퍼시픽 연구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교육을 진행해주었다. 셋째 날 상반기 실적공유 및 하반기 영업전략 논의를 끝으로 2박 3일 일정의 파트너 워크샵을 마무리 지었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WITQ Global Conference Meeting 개최

(주)원익큐엔씨는 지난 8월 20일 ~ 8월 21일 양일간 (주)원익큐엔씨 대만 사업장(WITQ)에서 Global Conference Meeting을 개최하였다.

(주)원익큐엔씨는 박근원 대표를 포함하여 4명, WITQ에서는 Martin Yang 포함 9명 그리고 독일 및 미국(WIQIC)의 Mark Dehart 등 총 14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미



팅에서는 각 사업장들 간의 Global Synergy 효과 및 기술 교류에 대한 협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장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 각 사업장의 장점 및 지역별 시장의 특성에 따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최대한의 시너지를 창출, 금번 교류에서 수립된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주)원익큐엔씨는 앞으로도 미국, 독일, 대만 사업장 간의 교류를 더욱더 확대하여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



지난 8월27일, (주)원익큐엔씨는 기업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 임직원 단체 영화 관람의 시간을 마련하였다.

퇴근 후 롯데시네마 구미공단관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주)원익큐엔씨의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영화 관람을 즐겼다. 자랑스런 우리 역사를 되새기고,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배우자는 뜻에서 영화 '명량'을 선정하여 관람하였다. 1,80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이기 때문에 이미 명량을 관람한 직원들도 꽤 있었다. 그럼에도 두 번이나 보았지만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취지가 좋아 같은 영화를 또 보러 왔다는 직원도 있을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영화 티켓과 함께 팝콘 및 음료 교환권도 제공하였다. 팝콘을 2인당 1개씩 배부하였기 때문에 짝

을 이루어 앉아야 했는데, 이 때문에 사무실도 부서도 전혀 다른 직원들끼리 의외의 짝이 되어 나란히 영화를 관람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업무에서 벗어나 좋은 사람들과 좋은 영화를 관람하며 모두가 흡족한 시간을 보냈다.

첫 단체 영화 관람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주)원익큐엔씨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직원 복지와 기업문화 활성화에 힘을 계획이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제3회 반도체협회장배 족구대회' 우승

지난 10월 18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개최된 '제3회 반도체협회장배 족구대회'에서 (주)원익큐엔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족구협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협회 회원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26개 팀이 참가하였다. (주)원익큐엔씨에서는 세라믹사업본부 임용철 기좌 외 5명이 출전하여 열띤 경기를 펼쳤다. 예선전에서부터 모든 경기에서 2점을 획득하며 승승장구로 결승까지 진출하였다. 결승전에서는 작년 우승팀인 토판 포토마스크를 상대로 2 대 0으로 승리하여 우승

컵을 거머쥐었다. 특히, 토판은 작년 대회 8강전에서 만나 아쉽게 패했던 팀이었기에 더욱 더 값진 승리였다. 우승컵과 함께 최우수선수 또한 원익큐엔씨에서 탄생했다.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품질경영본부 최성호 기좌는 “팀원 모두가 열심히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고,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팀에서 제일 연장자라 상을 받게 된 것 같다는 겸손한 수상 소감을 전했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큐엔씨, 신 인사제도 시행

(주)원익큐엔씨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신 인사제도가 시행되었다. 신 인사제도는 원익큐엔씨에서 1년 이상 준비해온 프로젝트로, 올 9월 말에 마무리되어 10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HR & Org. Competence 배양의 일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인사제도의 목적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직이 기대하는 역할에 부합하는 행동과 성과를 내는 사원들이 제대로 보상받는 인사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크게는 직급제도, 임금제도, 평가제도가 개선되었다. 신 인사제도가 시작됨으로써 개선되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올해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도입해나갈 예정이다. 신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주일에 걸쳐 본부별 혹은 팀별로 소그룹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직원 대화의 시간을 활용하여 전 직원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체 직원들에게 신 인사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역할과 성과를 핵심으로 한다는 처음의 취지에 걸맞게 역할과 성과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아이피에스 10월 2일 한계돌파TF Kick off 실시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목표로 현재의 국내굴지 반도체 장비회사라는 한계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전사적 경영혁신Mind를 고취시키고 한계돌파를 위한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9월 2일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계돌파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재무팀 김형석 상무를 필두로 하여 한계돌파TF를 결성하여 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2015년 6월까지 매월 진행현황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원익아이피에스에서는 이번 한계돌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주)원익머트리얼즈

2014년 (주)원익머트리얼즈 중견기업부문 대통령 표창

지난 9월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아트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한 제38회 국가생산성대회에서 (주)원익머트리얼즈가 단체 가운데 중견기업부문에서 영예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진중 사장은 “이번 국가생산성대회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반도체용 특수가스와 관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TPM사무국이 국가생산성 챔피언 경진대회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부문 챔피언에 올라 수 상하는 등 보기드문 겹경사가 펼쳐졌다.

Geart Work Place!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자유 소통 행복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전임직원이 서 로 신뢰의 한 마음으로 핵심가치를 통해 변화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TPM 혁신 활동을 통한 전사적 혁신 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업무 효율을 위한 개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해와 공감을 바 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활동으로 제조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주)원익머트리얼즈

옥상포차에서 삼겹살 Day

(주)원익머트리얼즈는 13일 저녁 식당 공사로 인하여 옥상에 차려진 실내포차에서 올해 목표달성을 위 해 열심히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삼겹살데이 이벤트를 하였다. 사내 공지를 통해 삼겹 살 이벤트를 알려 많은 직원들이 참석 을 하였으며, 모든 임원들이 일일 요리 사로 나서 사원들에게 직접 고기를 구 워주며 격려해주는 훈훈한 자리였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삼겹 살을 먹으며 소통하는 파이팅 넘치는 자리로 뜨거운 열기와 함께 후끈 달아 올랐다.



신원종합개발(주)

신원종합개발(주) 비전 선포식 개최



신원종합개발은 10월 10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선포식을 갖고 ‘국내1위의 부동산개발 및 솔루션 제공회사’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새로운 건설 환경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토탈 주거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임직원의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은 전략목표로 ‘2020년까지 매출액 3,000억 달성, 영업이익 200억 실현’을 제시했고 △1단계, 기존 사업차별화 △2단계, 신규사업 다각화 △3단계, 융복합 고도화를 비전 달성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박영일 대표이사와 전임직원은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비전 전도사로서 힘차게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주)원익큐브

우리는 할 수 있다! (주)원익큐브 한 마음 대행진 실시



지난 10월 8일 (주)원익큐브는 판교사옥 앞 탄천 산책로를 따라 낙생대 공원까지 약 3km를 전 직원이 서로를 격려하며 걷는 ‘한 마음 대행진’을 실시하였다. 해도 밝지 않은 시각 6시 20분에 전 직원이 모여 간단한 준비운동과 사장님 말씀 후 전사 구호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다.

평소 출·퇴근 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 하였던 물안개, 풀에 맺힌 이슬을 보니 감 회가 새로웠다.

낙생대 공원에 도착 후 각 사업부별로 준 비해온 다양한 구호를 파도타기로 외침으 로써 웃음을 자아내며, 임직원들간의 화 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014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행진을 함으로써 4분기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원익큐브

나누고 배려할 줄 아는 원익인의 사회공헌활동 헌혈행사 진행 현장

10월 20일 오전부터 헌혈진행 차량이 원 익빌딩 앞에 서 있다. 원익 계열사 임직원 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헌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면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따 뜻함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다. 비 내리 는 월요일 아침, 원익빌딩 앞에서 오전10 시부터 헌혈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하나둘 헌혈버스로 들어 서는 원익인들을 보며 남을 생각할 줄 알 고 봉사할 줄 아는 원익인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헌혈의 보상은 영화표, 여행용 세면도구 등 실용적인 물품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 내부에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초코파이,과자 등 여러 간식과, 음



료도 구비되어 있었다. 사원증이나 주민등록증만 소지하고 있다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한 누구든 지 참여가 가능했고,평소에 직접 하러 가기 어려움이 있었던 헌혈이 버스로 직접 와주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주)테라세미콘

테라세미콘 SEC 협력사 협의회 개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4년 9월 25일 본사에서 ‘테라세미콘 SEC 협력사 협의회’ (이하 SEC 협력사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SEC 협력사 협의회는 당사를 포함한 6개 협력사로 구성되어 협력사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기술, 판로 등 협력을 증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협력사 경쟁력 제고 차원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SEC 협력사 협의회 외에도 SDC 협력사 협의회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력사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주)테라세미콘

(주)테라세미콘 2014년 3분기 Hof day 실시



(주)테라세미콘은 경영진과 직원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오산시 페어리파티하우스에서 2014년 3분기 Hof day를 실시하였다. 참석한 직원은 애로 및 건의사항, 개인 고민상담 등 주제에 제한 없이 경영진과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도 넌센스 퀴즈, 이벤트 게임을 실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영진과 직원간에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Hof day를 실시하고 있다.

(주)테라세미콘

사랑의 헌혈 Relay 실시

(주)테라세미콘은 지난 2014년 9월 22일 본사 및 지점 2곳에서 삼성전자 협력회사 봉사단(SEPAS)이 주관하는 제 8회 사랑의 헌혈 Relay에 참가하였다. (주)테라세미콘 임직원의 적극적인 행사 참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으며 헌혈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헌혈 후 받은 헌혈증을 삼성전자 협력회사 봉사단에 기증하였다. 기증된 헌혈증은 향후 한국심장재단에 후원될 예정이다.



이번 사랑의 헌혈 Relay를 통하여 헌혈의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수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긍정적 이미지와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하며 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주)씨엠에스랩

트러블 예방부터 관리, 커버까지 토탈솔루션스위스킨 'A.C. 컨트롤 라인' 5종 출시



(주)씨엠에스랩의 스위스킨 브랜드(www.suiskin.co.kr)는 트러블 예방에서 커버까지 전체적인 관리를 통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트러블케어 라인 'A.C. 컨트롤' 5종을 출시하였다.

'A.C. 컨트롤'은 트러블케어 라인으로 폼 클렌저, 토너, 젤 로션, 누드파우더, 스팟 솔루션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부 트러블은 발생 시 빠르게 케어 하지 않으면

면 상태가 악화되어 흉터를 남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A.C. 컨트롤은 살리실릭애씨드(Salicylic Acid)와 베헤롤(Centella asiatica) 추출물의 황금배합을 통해 피지 및 트러블을 빠르게 케어 해주고 피부에 탄력을 더해준다. 또한 소나무의 설퍼(Sulfur) 성분의 살균 작용을 통해 트러블 확산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보습감과 청량감을 부여해준다.

따라서, 과다한 피지분비로 인해 피부가 균형을 잃거나 잦은 트러블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그리고 트러블로 인한 흔적 및 색소침착 등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할 때 A.C. 컨트롤을 사용하면 트러블 예방부터 커버까지 토탈케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씨엠에스랩

제 3 차 동아시아 피부과 학술대회 참가 (3rd Eastern Asia Dermatology Congress)



(주)씨엠에스랩은 지난 201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ICC에서 개최된 제3차 동아시아 피부과 학술대회(이하 E.A.D.C)에 참가하였다. E.A.D.C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피부과 전문의들이 피부질환의 연구와 치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학술대회로써, 이번 학회에는 아시아 지역 13개국의 우수한 피부과 전문의 및 오피니언

리더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씨엠에스랩은 자사의 Cosmedical 전문브랜드인 Cell Fusion C에 대한 제품 상담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동아시아 화장품시장에서의 브랜드이미지를 높일 수 있었으며, 특히 Cell Fusion C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 현지의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는 것은 이번 학회 참가의 큰 수확 중 하나이다.

(주)씨엠에스랩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회 참가를 통하여 동아시아 시장에서의 Cell Fusion C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2014년 가족행사



원익투자파트너스(주)는 지난 9월 19일 하반기 가족행사인 풍월당 행사를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극장이라는 주제로 오페라 강의를 시작하였다. 풍월당 대표인 박중호 선생의 2시간의 짧은 강의를 들으며 오페라의 재미와 진정한 교양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화 <귀여운 여인>의 리처드 기어 대사처럼 “오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즐겨라”는 말처럼 임직원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강연이 되었다.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표현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이사의 직원들에 대한
마음은 각별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직원들과 마주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원 개개
인의 행복을 위해 CEO로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소통의 기업문화,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좋은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바람직한 기업문화가 잘 어우러진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 CEO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대표이사는 회사 내에서 직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목표한 대로 일이 잘 추진 된다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믿고 있다. 그는 “자유롭고 편안한 사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 개개인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믿고 지원해주는 것이 CEO의 역할”이라며 “원익이 추구하는 ‘자유, 소통, 행복’이라는 핵심가치는 CEO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말했다.

변정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주)원익아이피에스를 세계적인 반도체장비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분야의 투자와 OLED에 대한 투자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창사 이래 최고의 경영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 배경에는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설비의 안정화를 이뤄낸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지난 2012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꾸준한 성장세를 이끌어온 변정우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CEO로서 느끼는 여러 고민들과 임직원 대한 애뜻함도 드러냈다.

그는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서 “참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일 자체를 줄이기가 상당히 힘들고, 반도체 분야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작정 인원을 보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심한 배려로 직원들 격려하는 CEO

‘소통경영’을 중시하고 있지만, 변정우 대표이사 역시 바쁜

일정으로 인해 직원들과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는 않다. “직원들과 간담회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외에는 동호회, 봉사활동 등 업무 외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 아쉽다”는 그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CEO로서 추구하는 목표가 높고, 이에 따라 해야 하는 일도 많다 보니 인간적인 소통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직원들을 생각하고 응원한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사내에 피트니스 센터와 탁구장을 운영하고, ‘수요명화감상’, ‘가족테마여행’, ‘명랑운동회’, ‘텃밭 가꾸기’ 등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복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4개월여 전 새로 마련된 ‘수면실’은 직원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실 이 수면실은 불 꺼진 사내 도서관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잠든 직원을 우연히 본 변정우 대표이사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하면 일에 집중할 수 없다. 잠깐의 휴식이라도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수면실을 마련하게 됐다”며 “안마 겸용 의자가 있어 피로도 풀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눈치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세계 1위의 반도체장비기업이 목표”

변정우 대표이사는 (주)원익아이피에스를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주)원익아이피에스와 인연을 맺은 계기도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 근무할 당시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은 국내에 있는데, 설비와 소재는 거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점이 안타까웠다고.

그는 “막연하게 ‘세계 1위의 반도체장비기업이 되자’고 말하는 건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 꿈을 단계적



으로 구체화 시켜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며 “직원들 스스로 경쟁업체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그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수준과 실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토론 활성화, 학술대회 참석, 고객과의 TRM, 학습조직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끝으로 변정우 대표이사는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현하는 장비 또한 새로운 기술이 창조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SECTION 01 | 自由

24 **Discovery of Baduk** 2014년 바둑 국가대표



28 **Special Edition** 삼성 콤프레셔 광주공장 견학



자유
내일을 향한

원익사의
열린사고와 자유로운 도전은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2014 국가대표 상비군 단체사진

2014년 바둑 국가대표 '유창혁 호' 출범 및 활동

그 동안 '원익배 십단전' 바둑대회 후원을 시작으로 바둑과 인연을 맺은 원익은 침체기를 맞았던 한국 바둑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 있는 많은 바둑 영재와 선수를 발굴,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2013년부터는 '원익배 십단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형태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 바둑 발전을 위해 한국 기원과 함께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를 출범 시켰다.

2014년 부터는 새롭게 국가대표 조직을 정비하면서 ‘유창혁호’가 본격 출범을 알리며 한국 바둑 중흥을 다짐했다.

지난 5월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2014년도 국가대표 상비군 발대식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발대식에는 유창혁 9단 등 국가대표 상비군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38명을 비롯, 한국기원 박치문 부총재, 양재호 사무총장, 사이버오로 박상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선수단 소개와 발대사, 선수 대표 선서, 격려사 순으로 진행된 발대식에서 유창혁 감독은 “어려운 시기를 맞은 한국 바둑의 미래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중국 바둑은 한국을 넘어서기 위해 10년 이상을 노력해 만들어진 만큼 우리도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해 최고의 한국 바둑을 이뤄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가대표 상비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2014년도 새로운 사령탑에 오른 유창혁 감독은 최명훈 코치, 이창호 · 이세돌 기술위원, 목진석 기술멘토, 김성룡 전력분석관으로 코칭스태프를 구성해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간다.

남녀국가대표와 상비군, 육성군으로 구성된 국가대표 상비군은 매주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하며, 지난 제19회 LG 배 세계기왕전 본선 무대가 열리는 강릉에서 전지훈련을 통해 팀워크 뿐만 아니라 전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상비군감독 유창혁 9단



선수들의 대국을 지켜보는 유창혁 감독

2014년도 확정된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자국가대표(7명)

박정환, 김지석(주장), 이세돌, 최철한, 박영훈,
강동윤, 조한승

여자국가대표(4명)

최정, 박지은, 김혜민(주장), 조혜연

상비군A팀(89년 이후 출생자 8명)

나현, 이지현, 안성준, 김정현(이상 시드), 류수향,
한태희, 안국현, 김세동(이상 선발전)

상비군B팀(96년 이후 출생자 6명)

변상일, 이동훈, 신진서, 신민준, 김진휘, 한승주

상비군 여자팀(4명)

김윤영, 오정아, 오유진, 박태희(이상 선발전)

육성군(4명)

김채영, 설현준, 최영찬, 김명훈(이상 감독 추천)

또한, 한국 바둑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으로 선임된 유창혁 9단은 코치를 맡은 최명훈 9단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무적의 양이(兩李)' 이창호 · 이세돌 9단을 기술위원, 김성룡 9단을 전력분석관으로 내정했다. 또한 국가대표 상비군 운용 계획도 마련했다.

한국기원에 따르면, 유창혁호는 남녀 국가대표와 상비군 3개조(A · B팀, 여자)로 운영되며 인원은 30명 안팎이다. 조직 슬림화와 소수정예화다. 또 만 18세 이하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육성군'을 조직해 강화 훈련을 펼친다. 끊임 없이 '젊은 피'를 길러낸다는 복안이다.



선수들에 조언 중인 최명훈 코치



기술멘토 이창호 9단의 지도를 받는 상비군



주목받는 신예 신민준 二단의 대국을 지켜보는 국가대표 김혜민 七단

남자 국가대표는 7명으로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을 비롯해 김지석 · 최철한 · 박영훈 · 강동윤 · 조한승 9단 등 군 복무 중인 기사를 제외한 올 4월 랭킹 최상위권들이 포진했다. 특히 랭킹 3위이기도 한 이세돌 9단은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도 참여한다.

여자 국가대표는 4명이다. 역시 4월 랭킹 순으로 최정 4단 · 박지은 9단 · 김혜민 7단 · 조혜연 9단 등이 선발됐다.

상비군 A팀은 8명으로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400점 이상인 나현 4단 · 이지현 4단 · 안성준 5단 · 김정현 4단 등 4명이 우선 뽑혔다. 나머지 4명은 선발전을 통해 추후 발탁될 예정이다.

상비군 B팀은 1996년 이후 출생자로 랭킹점수 9200점 이상인 변상일 3단 · 이동훈 · 신진서 2단 · 신민준 · 김진휘 초단 · 한승주 2단 등으로 구성됐다.

상비군 여자 4명은 역시 선발전을 통해 선정된다.

‘육성군’은 감독 권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유창혁 감독은 “앞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훈련하게 될 국가대표 상비군은 대국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배들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당장의 성적 보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영재 육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및 상비군 상비군 훈련비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예산 2억원을 지원하고, 원익과 사이버오로가 각각 1억원을 협찬한다.

계열사 CEO, 임직원들 삼성 콤프레셔 광주공장 제조혁신 현장 Bench Marking 활동

원익 전 계열사 CEO와 임직원들이 지난 8월 삼성 콤프레셔 광주공장 혁신활동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견학은 6월24일 삼성 협성회 회장단 모임에서 소개된 삼성 콤프레셔 광주공장의 제조혁신 활동에 대해 견학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이용한 회장의 제안으로 삼성 상생협력 팀과 협의 하에 추진됐다.



계열사 50여 명의 임직원들, 사전 공감대 형성 및 총 2차로 나누어 견학

먼저, 원익은 이번 견학에 앞서 삼성 상생협력팀의 지원을 받아 배포한 ‘끈기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콤프’ 동영상 CD로 각 계열사별 공유회를 갖는 등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각 계열사 CEO를 포함해 경영지원, 제조, 품질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원으로 구성된 2개 차수 총 50명이 최종 확정됐다.

8월12일에는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테라세미콘, (주)원익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8월14일에는 2차로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위너스 견학단이 삼성 콤프레서 광주공장 혁신활동에 대한 벤치마킹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삼성 콤프레서 광주공장 견학은 1부 ‘끈기와 열정으로 살아가는 콤프’ 강의와 동영상 시청, 2부 현장 투어로 나누어 진행됐다. 콤프레서 생산물량의 중국이전으로 2007년 230억 적자의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 봉착한 콤프사업부는 ‘초일류 아카데미’라는 간부대상의 극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42,195Km 행군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극기력을 배양하고, 매월 1회 지난 8년간 총 91차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리고 이는 현재 혁신활동의 모태가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급변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설비 노후화’와 ‘Over Head 비용절감’을 혁신활동의 중점 항목으로 선정한 콤프사업부는 설비 누드화, 지문을 지워라 등 80세의 노후설비를 20세 설비로 만드는 PRO-3H 활동인 ‘8020 설비만들기’, ‘청소도구 경진대회’, ‘타잔 줄타기’, ‘두더지 땅굴파기’ 등의 ‘제조일별 Theme 활동’ 및 장갑-머리두건 재활용, 번기통 내 페트병 넣기, 무구동문장착 등 ‘Over Head 비용절감’과 같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혁신활동에 재미난 이름을 붙이고, 간접부서의 현장참여를 유도하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혁신활동으로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전사 혁신활동의 결과는 공정 User 불량율 ‘14년 기준 4ppm 달성 및 ‘13년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대통령상 은상 수상 등의 쾌거를 이루었고, 혁신의 현장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 2013년 삼성 계열사 직원 1,600명이 현장을 방문했다. 또 올해에도 삼성 협력사 직원 1,000여 명(6월 기준)이 다녀갔고, 또한 방문을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성공적인 혁신활동 사례 견학코스로 부상했다.

2부 제조현장 투어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진 1부의 혁신활동 내용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삼성 콤프레서 광주공장의 ‘디지털 속의 아날로그 관리’는 개선활동 목표 및 실적 Data를 벽에 부착하여 눈에 보이는 관리화를 하고 있었고, “새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잉꼬 2쌍을 키우며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집중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가공공정의 특성상 철 부스러기-기름 등이 튀어 바닥관리가 쉽지 않고 일반화를 신는 현장의 바닥상태는 놀라울 정도로 청결하여, 지난 8년간의 끊임없는 혁신활동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콤프사업부는 지나온 40여 년에 이은 향후 40년을 대비, 제2의 도약을 위한 '4080 활동'을 차질 없이 준비해가고 있었다.

“계열사 별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및 실행”

이번 견학에 참여한 각 계열사의 CEO, 본부장, 제조, 품질 및 혁신 담당자 등은 삼성 콤프레서 광주공장 벤치마킹 활동에서 ‘끈기와 열정’,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간절함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혁신 및 원가절감 활동을 쉬지

않고 추진한 것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져 더욱더 혁신을 가속화하는 선순환 모드로 발전해 갔음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의 공통적인 소감으로는 ▲ 간부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 아침 6시부터 출근해 모든 직원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앞장서서 리드하는 자세가 혁신의 불을 지폈고, 그 작은 불씨가 직원들 전체로 확산되어 다시 경영진들에게 피드백이 될 수 있었다. ▲ 현장 경영- 현장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눈으로 보는 현황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재 시스템 등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바로 해결한다는 신속함이 인상적이었다. ▲ 전 직원들의 경제적 감각에 대한 생활화- 불량, 재작업, 설비의 Over Head 비용 및 일일 자재 폐기비용 등 모든 움직임을 돈으로 표시하였고, 이러한 비용관리의 생활화는 자연스럽게 원가절감이라는 성과로 귀결되었다 등이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벤치마킹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시행착오 사례 또는 구체적인 의식개혁 방법 등의 설명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한편 원익 전 계열사 임직원들은 이번 삼성 콤프레서 광주공장 벤치마킹 활동을 통해 느낀 배울 점과 좋았던 점을 중심으로 각 계열사 실정에 맞는 적용 가능한 개선 테마를 선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SECTION 02 | 疏通

32 **Wonik Business** (주)원익 CMS Cosmetic 팀



36 **Never Ending Challenge** 선진기업사례 뱅앤올룹슨



40 **Wonik Business** 2014 i-SEDEX 국제반도체대전



함께하는 소통

원익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는
더 큰 우리를 키워갑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소통은 시작됩니다”

지난해 원익에 인수 합병하면서 사명을 변경, 새로운 출발을 알렸던 (주)씨엠에스랩. 그 중 영업1,2팀이 올해 7월 (주)원익으로 편입됐다. (주)원익의 메디컬 사업 영역 중 에스테틱 분야와 만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업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끈끈한 팀워크로 무장한 (주)원익 CMS Cosmetic 팀이 보여줄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주)원익 CMS Cosmetic 팀은 현재 CMS에서 생산하는 메디컬 전문 화장품 브랜드 Cell Fusion C와 LIC 브랜드를 서울 경기지역 병,의원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이승룡 부장을 포함해 총 16

명으로 구성된 팀원들은 각각 강남, 강서, 서초, 강북, 노원, 마포, 강동 등 서울 지역을 비롯해 분당, 용인, 수원, 고양, 김포,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과 제주도 영업관리 및 영업 지원, 교육-마



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주)원익으로 편입된 이후 업무적인 면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교육 프로그램이나 포상제도를 신설해 내부 역량 강화와 건전한 경쟁,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다. 신설된 포상제도에 따라 9월에는 김두형 사원이 매출과 성장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2관왕을 달성했고, 손지영 대리가 매출 1위, 오소영 과장이 업적고과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주)원익 CMS Cosmetic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승룡 부장은 “교육,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매주 직원 교육과 고객 care program을 시행하고 있고, 매출-수금-성장률-업적고과 등의 부문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난 2개월여 동안 팀 리빌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무 뿐 아니라 팀원들이 모든 의사 결정이나 목표 설정 등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 동료의식과 동업자 마인드를 지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원익 CMS Cosmetic 팀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소통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젊은 세대의 패기와 열정도 한 몫 한다. 대부분 20~30대 젊은 연령대로 구성된 팀원들은 족구 시합을 벌이거나 농구동아리 ‘흑’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사내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등 업무 외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한다.

김승호 과장은 “영업의 특성상 회사로 출근하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팀원 모두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오전에 사내 헬스장에서 함께 운동을



한다거나 회식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손지영 대리 역시 “회사에서 남한산성 등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등산 후 회식 중에도 저희 팀 직원들은 족구를 하더라.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 팀에 더욱 활기가 넘치는 것 같다”고 자랑했다. 또 류현희 대리는 “회사에서 자기 계발비를 지원해 준 덕분에 오전에는 수영을 하고 있고, 틈틈이 사내 헬스장도 이용하고 있다”면서 “헬스, 농구, 족구 등도 좋지만, 앞으로는 여성 직원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트 동호회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정말 최고죠!”

(주)원익 CMS Cosmetic 팀이 이렇게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를 위하는 ‘배려’에서 시작됐다. 이번 인터뷰 내내 팀원들은 서로를 칭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먼저, 지난 4월에 입사한 박영준 신입사원은 “첫 회식 이후 다음날 양복주머니에 들어있는 3만원

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노한기 대리님이 교통비를 챙겨주셨던 것”이라며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입사 후 첫 회식자리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 했다. 또 그는 이러한 팀 분위기를 자랑하듯 “영업직이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지 않다.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팀원들이 보고 싶을 때가 많다”고 팀원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손지영 대리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업무 특성상 휴가나 병가에도 수시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적합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팀원들이 많이 도와줬다”며 “우리 팀의 모든 직원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각자 할 일은 물론, 상대방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다들 ‘OK’ 해준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외에도 팀을 이끌고 있는 이승룡 부장에 대해 팀원들은 “굉장히 자상하다. 회식 자리에서는 흑기사도 해주시고, 평소에도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편이다”(최동순 과장), “여직원에 대한 배려가 남다르시다”(조성미 대리), “운동을 좋아하셔서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 팀의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해주신다”(김승호 과장)고 강조했다. 특히 박선영 대리는 “포상제도가 9월에 신설됐다. 8월 매출 1위를 했던 나로서는 아쉬움이 컸는데, 부장님께서 신경 써주신 덕분에 70~80% 정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원익 CMS Cosmetic 팀의 배려는 업무적인 면에서도 나타났다. 강남 지역 영업관리를 담당했던 조성미 대리가 교육-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면서 팀원들이 강남 지역을 나눠 관리해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적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승룡 부장은 “팀원들 간의 배려와 소통, 화합은 우리 팀이 더욱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제품의 성공적 론칭과 점유율 확대 최고의 코스메슈티컬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주)원익 CMS Cosmetic 팀은 원익과 한가족이 되면서 여러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올 하반기에는 매출의 안정화와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Ultimate

재생라인 제품들의 성공적인 론칭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승룡 부장은 “오랜만에 출시된 신제품 Ultimate 재생라인이 고가의 제품임에도 현재 시장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하반기는 신제품의 안정적인 인지도 확산과 매출에 집중하면서 내년 매출 도약을 위한 고두보가 되는 4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원익 CMS Cosmetic 팀은 내부적으로는 역량 강화, 대외적으로는 최상의 고객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 market lead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코스메슈티컬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코스메슈티컬 뿐 아니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및 도입으로 매출 신장 및 고객 저변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에 나설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오로지 디자인을 향한 뱅 앤 올룹슨의 노력



"In everything we do, we strive to create solutions that simplify and enhance the modern home."

— Brian Bjorn Hansen, Senior Integration & Connectivity Manager, Bang & Olufsen.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형식은 수없이 바뀝니다. 하지만 디자인을 향한 Bang & Olufsen의 노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뱅앤올룹슨(Bang & Olufsen)은 디자인을 가치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전시될 정도로, 하나의 제품을 넘어 디자인적인 완성을 이루고 있다. 어떤 제품을 만들기에 미술관에 전시가 되느냐고? 집에서도 흔히 쓰는 오디오, TV 같은 전자 제품들이다. 하지만 제품을 보고 나면, 그저 전자 제품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뱅앤올룹슨은 1925년 덴마크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엔지니어인 피터 뱅(Peter Bang)과 스벤트 올룹슨(Svend Olufsen)로부터 시작됐다. 어려서부터 전자제품을 좋아했던 피터 뱅은 당시 라디오 시장을 리드하던 미국에서 유학하고 고향인 덴마크로 돌아와 자신과 뜻이 맞는 스벤트 올룹슨과 함께 뱅앤올룹슨을 세웠다. 이 젊은 두 엔지니어가 의기투합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은 배터리 없이 플러그를 꽂아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한 ‘플러그형 일리미네이터’(Eliminator)였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제품이었고, 이를 시작으로 휴대용 녹음기, 오디오 콤포넌트, 베오그램 4000 레코드 플레이어 등 각종 음향장비들이 만들어졌다. 현재는 TV, 사운드 시스템, 라우드스피커, 전화기, 멀티미디어와 같은 제품으로 분야가 확장됐다.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은

뱅앤올룹슨의 제품

뱅앤올룹슨의 제품들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세간의 이목을 끈다. 오래된 제품들도 그 디자인적 가치가 여전히 살아있다. 북유럽의 이지적인 느낌은 물론이고,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회사 제품들과는 확연히 다른 디자인적인 독보성이 있다. 또한 이들의 뛰어난 디자인은 '기술 혁신' 과도 행보를 같이 한다. 하나의 전자 제품을 넘어 '삶의



동반자'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뱅앤올룹슨의 제품 철학인데, 이것이 기술의 혁신을 이끌어 왔다. 센서를 이용해 손이 근처에 가면 CDP의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한다거나 CD가 돌아가는 것을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한 디자인들은 음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은 제품이다. 현재는

이런 디자인과 기술이 많이 상용화되어 있지만, 이는 뱅앤올룹슨이 오래 전 이뤄낸 성과들이다. 뱅앤올룹슨은 사람들의 상상과 바람을 현실로 구현한, 상식과 한계를 넘는 제품들을 꾸준히 탄생시켜 왔다.

뱅앤올룹슨의 세계적인 명성이 그저 새로움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력을 뒷받침하는 뱅앤올룹슨만의 견고함이 있다. 내구성과 안정성 면에서도 뱅앤올룹슨 제품은 남다르다. 이는 뱅앤올룹슨이 가진 제품 생산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는데, '고문의 방 The torture chamber' 같은 철저한 시스템이 그것이다. '고문의 방'은 집안의 온갖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품이 견뎌낼 수 있도록 제품 자체에 가혹하다 할 만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이 고문의 방에선 103



인치 TV를 크레인으로 1미터 높이까지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는 실험에서부터 제품 버튼에 땀을 떨어뜨리는 테스트까지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갖가지 실험이 실시된다. 뱅앤올룹슨은 이렇게 새로움에 기술력, 철저함까지 더해 자신들의 가치를 높여왔다. 이는 뱅앤올룹슨 스스로가 세워온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디자이너의 자율성 존중, 혁신 이끌어내는 디자인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부터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이 회사는 놀랍게도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디자이너가



없다. 뱅앤올룹슨과 작업하는 디자이너들은 프리랜서다. 디자이너를 프리랜서로 두는 것이 뱅앤

올룹슨의 정책이다. 세계적인 산업디자이너인 야콥 옌센(Jacob Jensen)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27



년 가까이 뱅앤올룹슨과 함께한 바 있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이비드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다. 이는 디자이너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혁신성을 이끌어내는 뱅앤올룹슨만의 창작 장치다. 디자이너를 회사 바깥에 두는 이유는 경영진의 압박이나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창조적인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뱅앤올룹슨의 최고경영자 톨벤 소렌슨은 “경영진의 역할은 디자이너를 돕는 것일 뿐”이라며, 회사의 상당한 영업 이익에 대해서도 ‘디자인 덕분’이라고 말한다. 실제 제품 생산 과정도 디자이너가 어떤 형태의 제품을 만들지를 먼저 구상하고 이후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제반 과정을





밟는 식이다. 디자이너는 회사 외부에 있지만, 회사로부터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핵심인 것이다.

뱅앤올룹슨은 이러한 디자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독창적인 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부 디자이너와 내부를 잇기 위한 뱅앤올룹슨의 시스템이다. ‘아이디어 랜드(Idea Land)’가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는 외부의



디자이너와 내부의 컨셉 개발자, 기술자, 경영인 등 3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다. 디자이너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와 실험을 되풀이해 상품을 완성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 누구도 디자인 자체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개발자, 엔

지니어 등이 디자이너의 지휘에 맞춰 협업을 해 나간다. 이처럼 ‘디자인’은 뱅앤올룹슨의 중심에서 존중 받는다. 그리고 디자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통 시스템은 독보적이다. 웬만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채택하기 어려운 시스템 같아 보인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뱅앤올룹슨의 제품들은 이용자들의 감성을 자극한다. 이용자들이 감동할 수 있는 수준, 조금 더 편한 방식의 작동법 그리고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아름답게 남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바람들을 뱅앤올룹슨은 잘 알고 있다. 어쩌면 디자이너 스스로가 제품의 열렬한 애용자인 듯,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세밀한 욕구까지도 잘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용자와 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뱅앤올룹슨의 제품들은 고객들에게 다정함과 감동을 선사한다. 뱅앤올룹슨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자신과 외부로 향한 이러한 소통의 충실함 덕분이 아닐까.

원익, 'i-SEDEX 2014' 참가

다양한 반도체 기술력 선보여



국내 최대 반도체 전문 전시회 '제16회 국제반도체대전(i-SEDEX 2014)'가 지난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연구조합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총 128개사 440부스가 참가했으며, 원익은 (주)원익아이피에스, (주)원익큐엔씨, (주)원익머트리얼즈 등 3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반도체 기술력을 선보였다.

'국제반도체대전'은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장비-재료 업체가 총출동해 최신 반도체 제품 전시와 함께 다양한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지난 2008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아래 '한국전자산업대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한국전자전(KES),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과 함께 분



야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이번 전시는 최신 반도체 제품 전시와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공정 기술의 현황과 전망’, ‘반도체 시장동향’, ‘반도체 장비 안전표준 교육’ 등 전문 세미나, 중소기업

업 인력난 및 우수인력 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설명회 및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 네트워크를 통한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년 ‘국제반도체대전’에 참가하고 있는 원익 3개사는 올해 역시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과 제품들을 선보였다. 전시회 첫 날에는 이용한 회장을 비롯해 (주)원익아이피에스 변정우 사장, (주)원익머트리얼즈 이진중 대표이사 등 계열사 대표들이 직접 부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자리를 빛냈다. 또한 원익의 상징인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부스는 올해 역시 큰 규모를 자랑하며 3개 계열사의 눈부신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각 계열사별 연혁을 배치한 것은 물론, 테

이블 및 VIP룸을 마련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고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원익 3개사, 치열한 경쟁에도 전망 밝다”

국내 반도체장비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원익아이피에스는 이번 전시에서 ALD, CVD, DISPLAY, SOLAR CELL, GAS SUPPLY SYSTEM, GAS PURIFIER 등 여러 제품을 소

개하며 적극적인 고객 응대에 나섰다. 특히 올 4분기 삼성의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만큼,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반도체 장비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사업1팀 김종환 부장은 “현재 삼성은 휴대폰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투자는 늘리고 있다. 특히 삼성은 중국 시안과 함께 17라인 신규 투자, SK하이닉스는 이천에 건립 중인 M14 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주)원익아이피에스의 전망이 밝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신규시장에 있어서 ALD공정 장비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주)원익아이피에스의 기술력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큰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원익큐엔씨 역시 국내외 투자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쿼츠 웨어 제품 및 LCD, Diffusion/CVD, Etcher 공정에 이용되는 세라믹 제품, LCD용 EUV Lamp를 전문적으로 제조 공급하는 (주)원익큐엔씨는 다양한 종류의 비산화물 세라믹 제품들과 OLED 쿼츠 장비를 소개하며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주)원익큐엔씨 퀴즈영업본부 영업1팀 이남중 부장은 “(주)원익큐엔씨는 4Q부터 국내외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이를 위한 고객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주)원익큐엔씨는 내부적으로 그동안 삼성 강소기업 평가에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왔다. 전시회 기간인 10월15일 평가가 진행되는데, 선정이 된다면 기술적인 부분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라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여러 준비를 해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도체 및 TFT-LCD 공정용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반도체, FPD, LED에 사용되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와 플랜트들을 종류와 규모별로 설명하고, 생산과정과 설비를 도표와 그림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국제반도체대전은 물론 국제정보디스플레이전(IMID)에도 참가 부스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주)원익머트리얼즈 김철호 전무는 “(주)원익머트리얼즈는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부터 IMID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도 회원 등록을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시 규모도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SECTION 03 | 幸福

46 **Scene of Welfare Service** (주)원익큐엔씨 봉사활동 '함께 나누는 SUMMER 나들이'



50 **Zoom in** (주)원익아이피에스 2014 명랑운동회



54 **Zoom in** (주)원익PS _ 이현준(미국서부 여행) (주)원익큐브 _ 유기연(유럽 여행)



가슴벅찬 **행복**

원익人的
자부심으로 즐거운 일터에서
더 큰 성취와 보람을 만들어갑니다.

“편견을 없애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요”

‘여름’은 강과 바다, 계곡은 물론 워터파크나 해외로 바캉스를 떠나는 짜릿한 계절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시원한 물 속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까. 하지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더운 여름, 물놀이 한 번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들도 있다. 이에 (주)원익큐엔씨 봉사동호회 ‘나눔회’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나섰다.





지난 8월23일 오전 8시30분,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주)원익큐엔씨 임직원 20여 명이 모였다. 이날은 장애아동들과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이 1:1 짝궁을 정해 대구에 위치한 스파밸리로 물놀이를 떠나기로 한 날. 2007년부터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연을 맺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온 (주)원익큐엔씨 봉사동호회 ‘나눔회’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장애아동들과 ‘함께 나누는 SUMMER 나들이’를 계획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나눔회 회원 외에도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이 함께해 더욱 훈훈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주)원익큐엔씨 인사팀 도현수 부장은 “2006년 나눔회 발족 이후 2007년부터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인연을 맺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장애아동들과 놀이공원을 함께 가거나 어린이날 사생대회 심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며 “올해는 통상적으로 하던 것과 달리, 나눔회 뿐만 아니라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이 나눔과 베품을 함께 실천하고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영지원본부 임창빈 부사장은 “그동안 ‘나눔회’ 이형길 회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반성도 했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오늘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 나를 비롯한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직원들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도 처음이고 집에서 역시 아이들을 돌본 적 없기에 걱정되지만, 안전사고 없이 즐거울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출발 전부터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활짝’
“물놀이 생각만 해도 신나요!”



여름철 물놀이는 누구나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미리 아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기에 이날 모인 (주)원익큐엔씨 임직원들은 간단한 교육을 받고, 1:1 짝궁을 정한 뒤 아이들의 보호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의사항을 전달받았다.

유진수(14, 지적장애 2급) 군과 짝궁이 된 생산1팀 황용철 기장은 “진수의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래서인지 진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절대 음식을 남기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면서 “진수가 장애인수영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내가 진수에게 한 수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웃어 보였다. 또 나눔회 이형길 회장(생산1팀)은 “처음 장애아동과 함께하는 물놀이에 걱정하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예전 경험에 비추어보면 크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없다.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한 행동은 자제하고 잘 따라주기 때문에 함께 물놀이를 즐기다 보면, 모두에게 행복한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처럼 물놀이에 나서는 아이들은 버스가 출발하기 전부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차분하게 버스를 기다리는 팀이 있는 반면, 신난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뛰어다니는 바람에 함께 뛰느라 진땀을 뺀 직원들도 있었다. (주)원익큐엔씨 생산1팀 조태영 기장과 이진권 기장은 아이들과 뛰어다니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활짝 웃었다.

시원한 물 속으로 '퐁당' 행복한 추억 만들기!

단체 버스를 타고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출발해 대구 스파밸리에 도착한 후에는 곧바로 물놀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수영복과 구명조끼 착용을 도와주고, 행어나 뜨거운 햇빛에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지는 않을까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주는 등 세심한 손길이 이어졌다.

드디어 물 속으로 퐁당! 짝궁과 손을 꼭 잡은 일행은 각각 아이에게 맞는 파도풀, 유수풀을 비롯해 미끄럼틀을 타는 등 신나는 물놀이에 흠뻑 빠졌다. 또 움직임이 불편하거나 어린 아이



들은 안전을 우려해 실내 유아풀에서 튜브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점심식사와 간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이들의 모습에는 첫 만남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구매자재팀 이종대 부장은 “봉사활동을 오기 전에는 막연하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이와 물놀이를 하면서 맑고 순수한 아이의 미소를 보니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나 역시 오늘 덕분에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같은 이종대 부장의 소감처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은 아프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일 뿐이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금 몸이 불편해 어려움이 있을 뿐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회의 구성원이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는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끝으로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이재광 사무국장은 “평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하는 야외활동은 쉽지 않은데, (주)원익큐엔씨의 도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기쁘다”고 고마움을 전한 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 보다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햇살 좋은 날,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먹는 도시락은 그 어떤 '맛집' 보다 훌륭한 맛을 낸다. 따뜻한 햇살과 술술 부는 바람,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함께하면 음식의 맛도 두 배, 즐거움도 두 배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게임도 즐기고, 바쁜 업무시간에 나누지 못한 대화도 나누면서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한 (주)원익아이피에스 명랑운동회! '운동회' 보다 신나는 '소풍' 같았던 현장을 들여다보자.



다양한 먹거리와 즐거운 게임!

업무 스트레스 날리고, 나들이 기분 만끽

지난 9월25일 평택 진위천 유원지 잔디구장에서 열린 (주)원익아이피에스 명랑운동회에는 약 2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2012년 가을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를 맞은 (주)원익아이피에스 명랑운동회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소통,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이날 현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즐거운 게임, 통 큰 경품이 준비돼 눈길을 끌었다.

간단한 오전 업무를 마치고 평택 진위천 유원지 잔디구장에 모인 (주)원익아이피에스 200여 명의 직원들은 돛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점심식을 하면서 웃음꽃을 피웠다. 통돼지 바비큐와 도시락은 물론

이고, ‘국민 간식 삼삼사’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어묵, 여기에 시원한 맥주와 막걸리, 해물파전, 과일 등 술과 안주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주)원익아이피에스 인사팀 박희원 상무는 “오늘 명랑운동회는 ‘소풍’ 처럼 편안하게 직원들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음식에 신경을 썼다.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 앉아 소통하는 것이 제일 즐겁지 않겠나”라며 “잠시 업무를 잊고 소풍 온 기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GS사업본부 장치사업팀 최보길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명랑운동회는 점심식사 이후 변정우 대표이사의 개막선언 및 개회사, 선수 대표단의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변정우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은 스트레스와 고민을 다 묻어놓고 즐겁게 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열심히 노는 (주)원익아이피에스의 문화를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또 “열심히 게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날 명랑운동회에는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강북삼성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나왔으며,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 준비운동으로 몸을 푸는 등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참가자들은 청팀과 홍팀, 두 팀으로 나뉘어 게임을 시작했다. 첫 번째 게임은 ‘코끼리 게임’. 팀 별로 총 7명이 참가해 제자리에서 코끼리코 10바퀴를 돌고 목적지까지 뛰어갔다 돌아오는 릴레이 게임이 펼쳐졌고, 막상막하의 대결에서 홍팀이 첫





번째 승리를 차지했다. 이어진 'OX퀴즈'에는 변정우 대표이사
를 비롯한 임원들과 직원들이 모두 참가했으며, 최후의 1인
으로 남은 홍팀 김진희 과장(재무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또, 임원과 사원이 함께하는 이벤트 계주에는 '대머리 가발' 과
'엉덩이 바지'가 등장해 웃음을 선사했고, 양 팀 선수 30여 명

이 참가한 줄다리기에서는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특히 앞서
'코끼리 게임'에서 승리한 홍팀은 이벤트 계주와 줄다리기에
서도 모두 승리해 최고의 단결력을 보여줬다.

코끼리 게임부터 줄다리기까지 열정적으로 게임에 참여한 기
술개발본부 기술개발팀 황희 부장은 "매일 사무실에 앉아 있
다가 오랜만에 직원들과 나와 운동도 하고 땀 흘리니 즐겁다"
면서 "집에 쌀이 떨어졌다. 오늘 경품으로 쌀을 받아가려고 더
욱 열심히 뛰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외에도 휴식시간에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진행 되었
으며, (주)원익아이피에스 공채 4기가 준비한 장기자랑 코너에
서는 '개그콘서트' 패러디를 비롯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신
나는 무대가 펼쳐졌다.





명랑운동회의 하이라이트! '경품 추첨'

명랑운동회 시작부터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건 무대에 쌓여있던 경품들. 신나게 게임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경품 추첨 시간이 다가왔다.

이날 준비된 경품은 쌀과 라면, 구급약 세트, 휴지, 문화상품권, 라텍스 베게, 극세사 이불, 교자상, 홍삼세트, 전기그릴, 캐리어, 캠핑을 위한 12인용 텐트와 코펠까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경품은 게임에서 활약한 참가자들과 재미있고 신나는 무대로 웃음을 선사한 장기자랑 팀 외에도 행운권 추첨을 통해 '야차상', '중박상', '대박상'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박상' (12인용 텐트)의 행운을 거머쥔 참가자는 구매팀 박정용 대리. 그는 "행운의 주인공이 돼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전한 뒤 "아이가 셋인데, 그동안 캠핑 다닐 기회가 별로 없었다. 세 아이와 함께

캠핑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분이 좋다"고 기뻐했다.

끝으로 이날 (주)원익아이피에스 2014 명랑운동회를 마무리하면서 변정우 대표이사는 "명랑운동회를 맘껏 즐겨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오늘의 즐거웠던 시간을 기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활기찬 회사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윤보라 · 사진 조인기



선진국의 문화와 기업 환경 탐방 해외 배낭여행이 선물해 준 ‘자유, 소통, 행복’의 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중심으로 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원익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보름여 간의 해외 배낭여행을 통한 변화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 것.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 이현준 과장과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부 수지영업2팀 유기연 부장은 지난 6~8월 각각 미국 서부 배낭여행과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이 선진국의 문화 및 기업 환경을 접하면서 느낀 ‘자유, 행복, 소통’의 가치와 재충전의 시간은 앞으로 원익이 글로벌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USA

미국 서부 배낭여행 후기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

이현준 과장



(주)원익아이피에스 TGS사업본부 이현준 과장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11일까지 총 13박14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주요 3개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를 다녀왔다.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의 Google, Apple, Intel, HP 등 선진 기업 탐방은 물론, 스탠포드 대학교-LA자연사박물관-그리피스 천문대 견학과 디즈니랜드-레고랜드 등 테마파크를 방문한 이현준 과장은 이번 배낭여행에 대해 “선진 기업의 문화와 근무환경을 확인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또 관광을 통한 힐링과 선진 문화 체험은 나 자신을 더욱 성장시킨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

먼저, Google은 자유 분방함 그 자체였다.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고, 직원들은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내에 있는 비치 발리볼장에서는 간소한 복장으로 비치 발리볼 게임에 여념이 없었다.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한 실리콘 밸리의 특성상 자유로움이 필수 인 듯 보였다. Apple 본사는 Google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일반인들에게 조금은 폐쇄적인 느낌이 없진 않았지만, Google보다 직원들이 훨씬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또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의 액세서리와 기념품을 파는 상점이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마케팅이 잘 되어 있는 듯 했다.

Intel은 내가 실리콘 밸리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에 관심이 대단히 많았던 내게 Intel Museum은 컴퓨터의 시초부터 최신 기술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보의 산실이였다. 특히 Apple 본사와 Intel의 경우 기업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주)원익아이피에스의 특성상 적용하기 쉽지





는 않겠지만, 회사 내 기술관을 마련해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 줄 수 있는 마케팅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국의 여유로움과 자유를 만끽한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풍경이 좋고, 볼거리가 많다는 PIER 39. 샌프란시스코에 오면 꼭 타봐야 한다는 지상 케이블카를 타고 도심에서부터 PIER 39까지 가는 길은 낭만을 넘어 흥분됨 그 자체였다. 특히, 케이블카가 45도 이상 되는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사를 올라가서 힘차게 내려갈 때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했다. 거리는 약 900Km. 이렇게 긴 거리를 한번에 운전한 경험은 전무한데, 그것도 미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9시간 동안 이동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끝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로 뻗는 고속도로는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했고,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자주 봤던 큰 트럭(일명 옵티머스 프라임)들이 즐비하게 다니는 모습은 다시 한 번 미국이라는 곳을 실감나게 해주었다.



라스베가스는 낮기온 45도에 육박하는 타는 듯한 더위가 만연한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각각의 호텔마다 무료SHOW가 펼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었다. 야경은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다웠고, 소비의 도시답게 활력이 넘쳤다.

로스엔젤레스에서 기억나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LA자연사박물관이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지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큰 고래뼈 형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공룡뼈를 전시하거나 재현해 만들어 놓은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우리나라의 여느 공룡박물관 보다 훨씬 큰 규모와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디즈니랜드와 씨월드, 레고랜드는 나의 아내와 6살된 아이가 가장 기대했던 곳이다. 디즈니랜드에 도착한 후 아이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미국의 다양한 테마파크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 많은 체험의 기회와 볼거리를 선사,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이번 배낭여행은 첫 번째 미국 여행이자 살면서 가장 길게 다녀온 여행이었다. 사실 두려움도 있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도 막막했지만,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조사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 특히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보를 바탕으로 내 가족의 여행자 리더가 되어 이끌고 미국 각지를 여행하니,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진 기업들의 문화와 기업환경을 보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처해 있는 한계도 많이 느낄 수 있었지만, 내가 근로자위원으로써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향상된 복지는 무엇이며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기업과 직원 서로간의 약속된 상생이 필요하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직원이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그 어떠한 기술 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번 여행으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가족들이 나를 믿고 따르는 신뢰일 것이며, 이는 나로 하여 다시금 주어진 일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EUROPE

유럽 배낭여행 후기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부 수지영업2팀

유기연 부장

(주)원익큐브 수지사업부 수지영업2팀 유기연 부장은 8월6일부터 8월22일까지 총 15박16일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5개국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각 국가별 주요 명승지를 돌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 돌아온 유기연 부장은 “여유로움과 자유, 행복이 느껴지는 유럽인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원익의 핵심가치인 ‘자유, 소통, 행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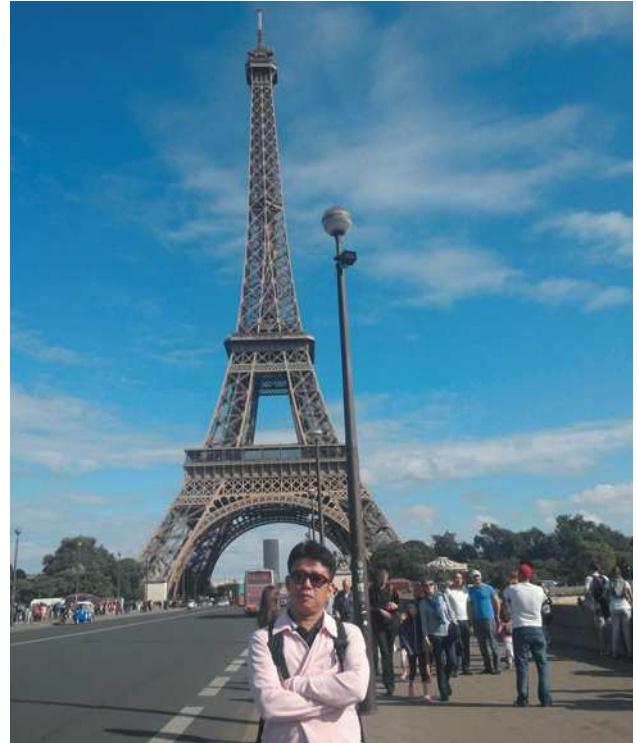
영국인들의 체구는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크지만 열차 크기, 거리의 모습도 호화롭지 않고 순박했다. 많은 직장인들이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오래된 지하철역이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며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검소한 모습과 항상 깨끗한 거리, 친절한 영국인들까지, 왜 ‘신사의 나라’ 라고 하는 지 금세 느낄 수 있었다.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나와 같은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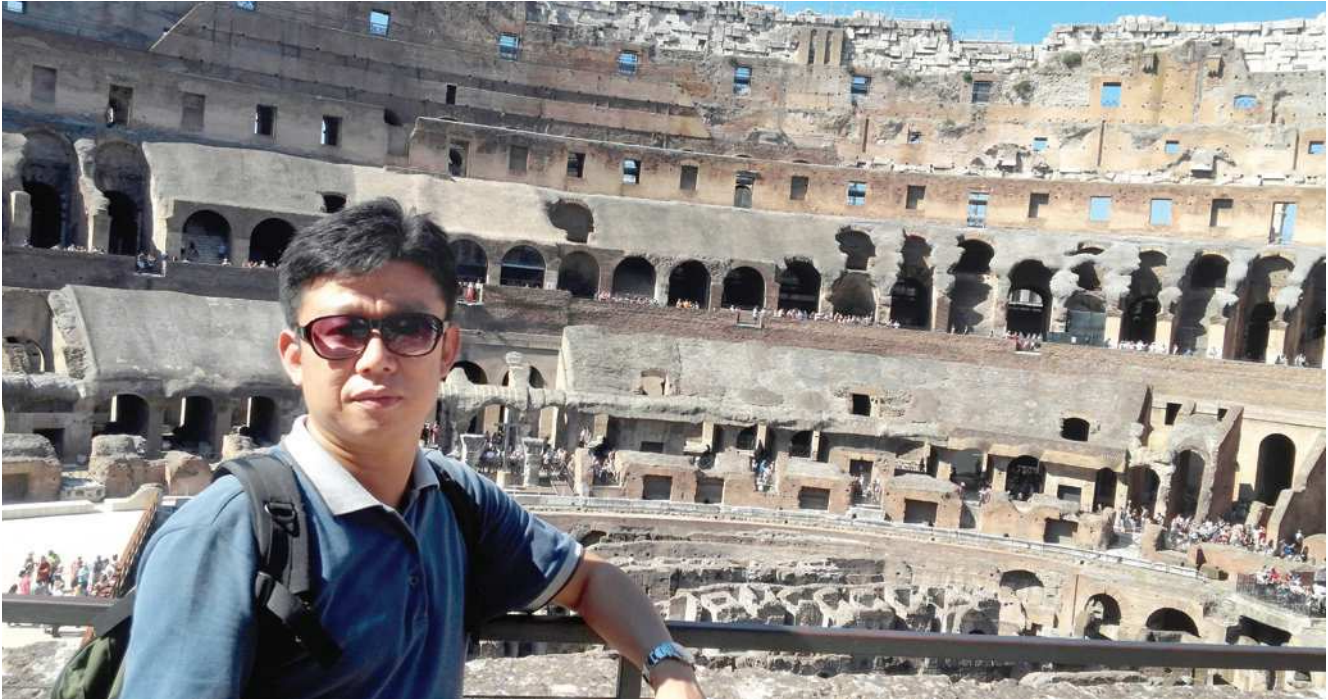


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과 소소한 추억과 여행에
서의 힘든 시간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을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프랑스 파리는 모든 광경이 예술작품 같아 화보 속에 서있는
느낌이었다. 그 웅장한 자태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것은 물
론, 하늘의 구름까지도 예술품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프랑스
어로 인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자신감이 부럽
기도 했지만, 그만큼 불편하기도 했다. 지하철을 탄 후 구식 객
차에서 손잡이 방식을 몰라 다음역에서 되돌아 갔던 기억, 베
르사유 궁전에서 갑작스런 소나기를 만났던 일 등 여러 잊지
못할 추억들을 남겼다.



스위스

기차를 타고 스위스로 들어선 순간 절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숙연해졌다. 바쁘게 돌아다녔던 영국-프랑스의 일정과 달리 여유로운 휴식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본 잠깐의 ‘꿀잠’ 같은 잊지 못할 여행지였다. 주요 도시가 인근 국가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 환승이 필수였기에 이동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만나는 사람들이나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다시 한 번 가족들과 꼭 방문해보고 싶다.

이탈리아

영화 ‘로마의 휴일’을 보며 꼭 한 번 가보고 싶었던 나라다. 과



거와 현재가 공존, 다소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인상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과거를 잘 보여주는 유적지들이 많았다. 특히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재가 있는 곳이었다. 이탈리아는 밀라노, 피렌체, 로마, 베네치아 등 이번 15박16일의 일정 중 5일이라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5일의 일정이 빠듯하고 아쉽게 느껴질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독일

이번 유럽 배낭여행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나라 독일.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맥주’였다. 힘든 여정 속에서 마신 독일의 맥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짜릿했다. 거리 악사들의 달콤한 연주에 걸음을 멈추고 느껴본 달콤한 추억도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다. 마지막 여행지였던 만큼 유럽의 모습을 되새기며 차분히 여행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었다.

“단조로운 내 삶을 되짚어 본 시간”

경제를 바탕으로 하나된 유럽, 그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하는 그들의 삶과 과거를 잘 보존하고 현실에 반영하며 사는 행복한 모습에서 현재 나의 모습을 되돌아 보는 여행이 되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행위를 어디서든 자유롭게 보여주고, 즉석에서 거리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모습에서 원익의 핵심 가치 ‘자유, 소통, 행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다.

이외에도 각종 표지판과 체계적인 지도 만으로 그들의 문화를 아주 쉽고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유럽인들의 세심한 노력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최근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불고 있는 한류를 통한 새로운 관광의 중심지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한 막강한 소비 때문인지 어디에서도 중국인을 위한 배려가 많은 걸 보고 다시 한 번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우리도 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문화를 느끼고자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열심히 걸어 다니는 등 욕심을 부린 탓에 매일 저녁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을 해가며 고생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유럽 배낭여행은 다양한 변수와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며 단조롭던 내 삶을 되짚어 보고, 더욱 단단해진 나를 만들 수 있었던 뜻 깊은 여행이었다.



6
2

LIFE STORY
Musical
창작 뮤지컬 '그날들'

지난해 각종 뮤지컬 시상식을 휩쓸며 창작뮤지컬의 가능성을 입증한 뮤지컬 '그날들'이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다시 돌아왔다. 이 작품은故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들로 만들었다는 점과 청와대 경호실이라는 미스터리하고 신선한 배경을 소재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14년 뮤지컬 '그날들'은 지난해 큰 사랑을 받았던 초연 멤버들과 함께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故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
초연 창작뮤지컬의 이례적인 기록 화제

2013년은故 김광석이 태어난지 50주년이 되던 해로, 가요-방송-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에서 그를 헌정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줄을 이었다. 특히故 김광석의 음악으로 꾸민 뮤지컬 '그날들'은 “역대 주크박스 뮤지컬 중 가장 완성도 있는 무대”라는 평가를 받으며 언론과 평단,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뮤지컬 '그날들'은 제7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창작 뮤지컬상',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 '베스트 창작 뮤지컬상', 제2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홍행상' 등을 수상했으며,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유료객석 점유율 80%, 손익분기점 달성 등 창작 뮤지컬로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서울 공연의 열기는 제주도를 포함한

7개 도시 투어까지 이어지면서 투어 공연 전 회차 매진이라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故 김광석의 노래로 만들어진 작품인 만큼, 56트랙의 '그날들 실황 앨범'은 초도 물량 매진은 물론 1년이 지난 지금도 단독 판매 중인 인터파크에서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는 등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2인조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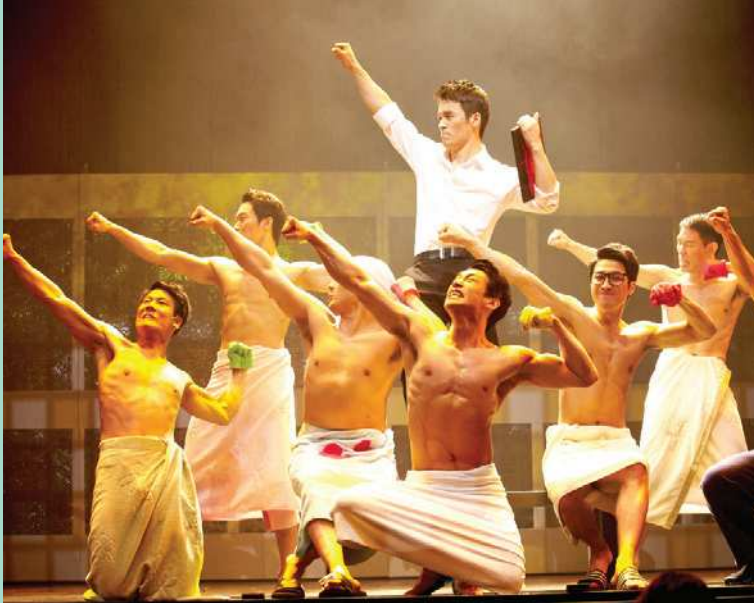
故 김광석의 음악

뮤지컬 '그날들'은 미스터리한 배경과 신선한 소재의 드라마로 펼쳐지는 무대다. 넘버들은 뮤지컬의 스토리에 맞게 12인조 오케스트라로 편곡돼 관객들의 가슴을 적실 예정. 극의 곳곳에는故 김광석의 음악이 주는 여운이 가득하다.

'그날들', '서른 즈음에',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이등병의 편지', '먼지가 되어' 등 전주만 흘러 나와도 가슴 깊이 파고드는 진한 감동과 가슴 아릿함은 그의 노래가 진정한 명곡임을 증명한다.

이 가을, 오케스트라로 만나는

姑 김광석의 주옥같은 음악



장유정 연출과 장소영 음악감독은 소박했던 원곡을 대형 뮤지컬 무대에 어울리는 12인조 오케스트라로 편곡해 극적인 요소를 더했고, 이에 그의 음악들은 한층 더 풍성해진 음악으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뮤지컬 '그날들'의 넘버는 극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며 명곡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보여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배우, 음악, 연출, 안무, 영상 등 모든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2014 뮤지컬 '그날들'은 명곡이 주는 즐거움 뿐 아니라 보완된 무대 기술과 화려해진 연출, 시각적 볼거리까지 풍성해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더욱 막강하고 탄탄해진 캐스팅

유준상 - 강태을 - 최재웅 - 이건명 - 김승대 등 출연

이번 2014 뮤지컬 '그날들'에는 의리로 뭉친 초연 멤버들이 대거 참여한다. 먼저,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쇼맨십의 대가인 배우 유준상과 관중을 압도하는 가창력의 배우 강태을이 지난해에 이어 '정학' 역으로 다시 한 번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무영' 역에는 배우 지창욱, 오종혁이 출연한다. 특히 '그날들' 초연에서 '무영' 역으로 사랑을

받은 배우 최재웅은 이번 무대에서 '정학'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실력으로 무장한 새로운 멤버들도 주목해 볼 만하다. 안정적인 연기로 뮤지컬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건명이 '정학' 역에 새롭게 합류하며, '엘리자벳', '몬테크리스토', '영웅' 등을 통해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을 지닌 배우 김승대와 올해에만 세 번째 뮤지컬 작품에 도전하는 슈퍼주니어의 규현이 '무영' 역을 함께한다.

이외에도 뮤지컬 배우 김지현, 신다은, 이진희, 김소진, 최지호, 서현철, 이정열, 김산호, 송상은 등이 함께해 끈끈한 팀워크와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 '그날들'

공연장소 : 대학로뮤지컬센터 대극장
공연기간 : 2014년 10월21일 ~ 2015년 1월18일
공연시간 : 화~금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
일요일 오후 2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관람료 : VIP석 110,000원
R석 88,000원
S석 66,000원
제작 :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02-541-7110





6
4

LIFE STORY

Health

담뱃값 인상과 금연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고 수명연장을 기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흡연자들로부터 ‘세수 확보가 목적이냐’, ‘흡연율이 높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 등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듯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 흡연은 폐를 비롯해 심혈관질환이나 골다공증, 각종 암을 유발한다. 또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다.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되면서 흡연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담배 사재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 뿐더러 무작정 끊겠다고 다짐을 해봐야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흡연자들도 많지만, 전자담배 액상 가격도 오를 예정이며 이 역시 체내 니코틴 흡수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연을 실천해야 할까?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금연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니코틴 의존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과 행동을 바꿔보자

—금연을 다짐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서서히’ 끊겠다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서 양을 줄여 서서히 끊는 것은 다시 또 서서히 피울 수도 있다는 것과 다름 없다. 가끔 담배를 끊었다고 선언해놓고 술자리에서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만 한 개비씩 피운다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금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담배를 참고 있다는 뜻이다. 어찌다 한 번 피우는 담배 한 개비로 인해 체내에는 다시 니코틴이

담배!

계속 피우실 건가요?

공급되고, 이는 언제라도 다시 니코틴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연을 다짐했다면, 당장 주변의 담배와 라이터, 재떨이를 모두 버리자. 남은 담배만 피고 끊겠다는 것 역시 금연 의지를 약하게 만든다.

- 흡연자들이 담배 욕구가 가장 강할 때는 식후 담배와 술자리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까지는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식은 흡연 욕구를 부추기므로 평소 식사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기름지고 강한 자극성이 있는 음식은 피한다. 야채나 과일은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물 1리터 이상 섭취해 체내 니코틴 배설을 돕는다.

금연 친구를 만들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해보자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끊은 친구를 둔 사람의 금연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6%나 더 높았다. 금연 결심도 쉽지 않은데 주변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금연 친구를 만들어 동기 부여와 함께 서로 응원하면서 약해지는 의지를 다잡아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금연을 다짐한 순간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었다”고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스스로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다거나, 주변의 시선이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금단 현상을 즐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연 후 초조, 불안, 불쾌감, 두통, 잦은 기침, 우울, 욕구 불만 등의 금단 현상에 시달린다. 그리고 이러한 금단 현상으로 인해 결국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면 금단 현상이 오히려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금단 현상을 체내에 쌓여있던 니코틴을 배출하면서 몸이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보자. “내 몸이 도대체 얼마나 담배에 길들여져 있었던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반성도 하고,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고 믿는다

면,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속는 셈 치고 한 번 읽어보자.

‘STOP! SMOKING’

절대 담배를 끊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 수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담배를 1~2갑씩 피웠다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금연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속는 셈 치고, 3~4일치 담뱃값을 투자해 ‘STOP! SMOKING’이라는 책을 읽어보자.(절대 책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흡연자들이 수없이 들어왔던 ‘건강을 해친다’, ‘백해무익하다’ 등의 흔하디 흔한 조언 따위는 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무려 33년 동안 하루 담배 8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였던 알렌 카(Allen Carr)라는 사람이다. 그는 수없이 많은 노력에도 번번히 금연에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현재는 절대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담배를 끊고, 금연 전도사가 됐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절대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끊지 말라고 말한다. ‘STOP! SMOKING’은 ‘담배’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독자들에게 아주 쉽고 간단한 금연방법을 제시한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책을 읽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담배를 지금 당장 꼭! 끊고 싶을 때 읽어라”, “담배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절대 읽지 말아라”라고 조언했다. 이유는 책 속에 있다.



ECONOMY

6

LIFE STORY

6

Economy

주택연금제도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노후 설계다. 이제 막 퇴직을 하거나 앞둔 사람들 중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0세 시대'라는 말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하지만, 매월 받던 월급은 사라지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은 악화되기 마련.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재취업 또는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100세 시대, 평생 모은 재산이 집 한 채라면?

이에 따라 최근에는 100세를 대비한 다양한 금융상품과 보험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느 정도 자금이 있을 때 가능한 설계 방법이다. 평생 다닌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이 넉넉하지 않거나, 이마저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 노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점점 부모를 모시거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싶지 않은 자식들과 또 은퇴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생각과 욕구가 강해지면서 더더욱 안정적으로 노후를 설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만약 은퇴까지 모은 재산이 집 한 채라면 주택연금에 고려해 볼 만하다. 주택을 담보로 남은 생애 기간 동안 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속세와 재산세 등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다.

■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노후에 집을 맡기고 평생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이다. 금융자산이 많지 않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정부의 정책성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많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는 등 제한이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다. 주택이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된다. 담보 대출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일반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 복지주택이면 된다.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나이와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만 70세의 가입자가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종신지급방식-정액형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99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라면 매월 받는 연금액은 200여 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를 25% 감면 받을 수 있고,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만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의 세제 감면 혜택이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 등 여타 연금에 대해 2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액은 주택금융공사가 집 값 추이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지만,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집 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가입 당시 약속한 연금은 그대로 보장하고, 정부가 지급을 100%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다만, 집 값이 하락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커지므로, 가입자들은 매년 잔액 대비 연 0.5%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연금을 받는 도중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금융 자산이 거의 없고 남아 있는 집 한 채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지 몰라 걱정이 된다면 담보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면 된다. 주택연금제도는 목돈이 필요할 때 추가로 언제든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의 일정 부



6 LIFE STORY
8 Economy
주택연금제도

분을 남겨둘 수 있다. 하지만 담보 대출한도가 높게 잡히면 매달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의료비 등 목돈 지출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 가입 당시보다 주택 가격이 올라 자녀

에게 상속하고 싶다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의 연금수령액이 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상속받는 자녀가 그동안 받은 연금을 갚으면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또 집을 처분한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많으면 주택금융공사가 남은 부분을 상속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모자랄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다 해도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주택연금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본 호 가 나 오 기 까 지
함 께 하 신 원 익 人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익사보 2014년 가을호 원익人 통권 40호

발행인 이재현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원익

본 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12번지
원익빌딩 9층

디자인 비즈커뮤니케이션즈 02.517.1901

사보 '원익人'은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원익	고건호
	이기복
	CMS Cosmetic

(주)원익큐엔씨	도현수
----------	-----

신원종합개발 (주)	현승훈
	한영석

(주)원익아이피에스	차유리
	김진혁
	이현준

(주)원익머트리얼즈	신희숙
------------	-----

(주) 위닉스	안희태
---------	-----

(주) 테라세미콘	최낙준
	박화수

(주) 원익큐브	윤세련
	유기연

원익투자파트너스 (주)	윤용인
--------------	-----

(주) 씨엠에스랩	오상열
-----------	-----

기획조정실	김동철
	윤지영



AESTHETICS

REVEAL
YOUR BEAUTY

VANQUISH™

Future Contours of Body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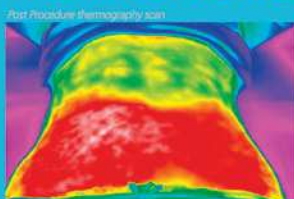
- ◆ 피부 비접촉 방식
- ◆ 광범위한 영역 (배와 옆구리를 한번에)
- ◆ Selective RF



TISSUE
SELECTIVITY



UNIQUE
THERMAL PROFILE



- No anesthesia or pain medication, no downtime
- No costly consumables
- Induced Apoptosis
- High frequency (27.12MHz)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삼평동) 원익빌딩 6, 7층
TEL : 031-8038-9047 FAX : 031-8038-9098 www.wonik.co.kr